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類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Relic Po(袍) and Fabrics of the Moon Su Temple

東國大學校 家政學科

安 明 淑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Myoung Sook Ann

<目 次>

I. 序 論

II. 遺物 袍에 대하여

III. 遺物 織物類에 대하여

IV.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It is studied that the typical garments of Korea Dynasty, especially focused on half-sleeved Saeng Jo Po and conspicuous kinds of fabrics.

Characteristics of this Po(Saeng Jo Po) are doubled collar, pleats, half-sleeved, a partial lining sewed in the back of an unlined coat, a breast-tie, and so on.

It is that a girdle of Po had been used from the early Korea Dynasty till the late Korea Dynasty, contrary to the general theory that a girdle of Po was the special characteristic of early Korea Dynasty in the garments history of Korea.

It is that the species of fabrics are 紗(Sa), 絹(Silk, Kyun), and so on.

In the fabrics, it is that there are many characteristic way of patterns in the Korea Dynasty, such as turtle patterns, cloud patterns, swastika patterns (卍字紋), etc.

I. 序 論

本 研究는 文殊寺 遺物 袍와 織物에 관한 研究이다. 그 對象은 瑞山群 雲山面 胎封里 40番地에 所在하고 있는 文殊寺의 極樂寶殿의 金銅如來坐像에 腹藏된 遺物 中 服飾에 關된된 것으로 衣服(袍) 한점과 織物 26片 中 형태를 알 수 있는 23片的 織物片 만을 다룬 것이다.

文殊寺에서 發見된 遺物들은 佛像造成發願文에 明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高麗 忠穆王 2年の 것임을 알 수 있다.

高麗의 服飾 資料는 다른 時代에 比해 적은 편으로 高麗圖經, 高麗史節要, 몇점의 肖像畫와 壁畫

정도이며 服飾의 實物資料는 袈裟 이외에 별로 없다.

그러므로 年代가 確實한 文殊寺의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인 衣服(袍)과 織物에 대한 服飾史의 가치는 매우 重要하다.

研究目的은 斷片的이나마 高麗時代 衣服의 形態, 材料, 特徵, 裁縫법과 織物의 紋樣, 色, 조직 등을 밝히는 것이다.

II. 遺物 袍에 대하여

1. 袍의 史的考察

遺物 袍는 短袖偏衫이라고 생각해 본다. 卽 高

〈表 1〉 遺物 袍의 치수

部 位	치 수(cm)	部 位	치 수(cm)
중 기 장	111	겉 깃 길이	50
화 장	42	겉 깃 넓이	9.4
폼	46	안 깃 길이	45
고 대	17	안 깃 넓이	9.4
진 동	32	등바대 길이	15.5
부 리	31	등바대 넓이	앞 7, 뒤 16
소매 길이	10.8	한개당 주름 넓이	위 4.3, 아래 8
깃살 넓이	위 24, 아래 32	주름 길이	66
안살 넓이	위 17.2, 아래 22.4	단 넓이	2~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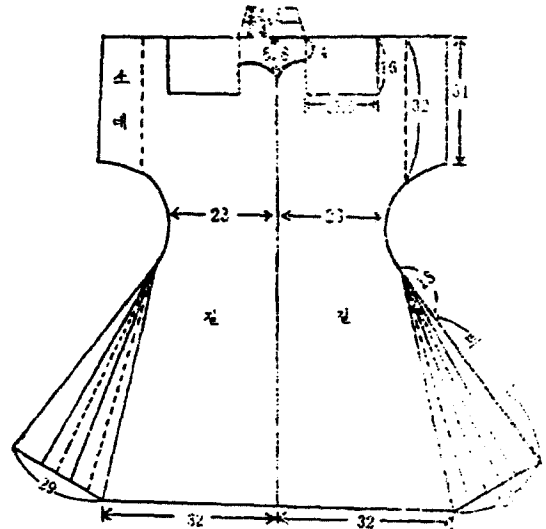


【圖 1】 寶蓋印 石塔의 一部

麗圖經의 道敎釋氏何黎大德條에 「其服 短袖 偏衫」²⁾이라 하던 短袖偏衫을 소매가 짧은 승려의 平常服을 말한다 하였으므로 이 遺物 袍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또 이 遺物 袍를 半臂로 보는 說³⁾도 있다. 유송우교수는 半臂는 半袖袍로서 現在까지 發掘된 服飾 中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高麗時代 忠穆王代의 素紵로 된 半臂와 朝鮮時代의 顯宗代 雲紋紵 半臂, 肅宗代의 實紵 半臂 等 3件이 있다고 하고 이 半臂는 夏節用일 것이며 赤古里 위에 덧입는 袂衣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 遺物 袍는 高麗時代 男女上下 모두 입었던 白紵袍라는 說도 있다.

高麗時代의 것으로 알려진 寶蓋印石塔²⁾에 이 遺物 袍와 같은 옷을 승려가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승려의 衣服일 可能性이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나 승려가 자신의 옷을 넣었을 리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 一般人이 승려의 옷을 지어서 시주했을까 하는 것에도 의심이 간다. 이 遺物 袍는 高麗의 基本 袍인 白紵袍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 袍



【圖 2】 袍의 後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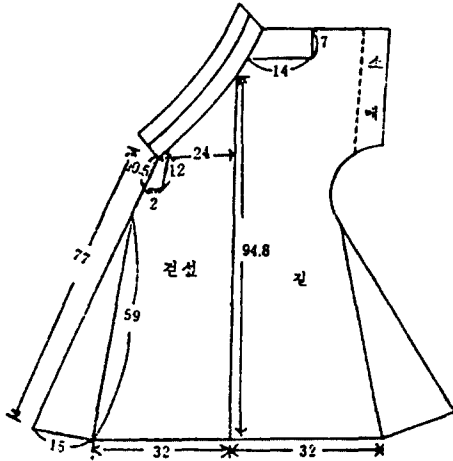
制中의 하나인 便服으로 生紵袍라 하겠다.

2. 袍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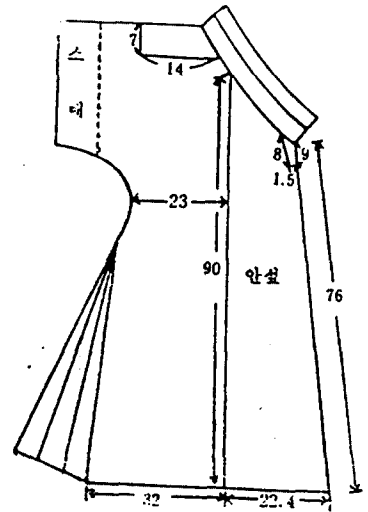
- 옷길이는 111cm로 짧은 편이다.
- 10.8cm의 짧은 소매가 달렸다.
- 옷깃이 이중깃(二重깃)으로 길며 넓다.
- 무릎이 트였는데 트임 사이에 주름을 5개 걸어 넣었다. 걸을때 트임이 벌어지더라도 안쪽의 주름이 보이게 된다.

3. 袍의 材料

高麗時代의 靱皮纖維織物은 統一新羅의 경우와



〔圖 3〕 袍의 右側圖



〔圖 4〕 袍의 左側圖

큰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다만 紵袍에 대한 기록이 많이 보이고 特別 紵中에서도 白紵袍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 紵布가 우리 民族固有의 重要한 衣服材料였음을 깨닫게 해 준다³⁾. 本 紵布의 幅은 35cm로 현재의 升數로서 12升이 되고 新羅時代에 나타나는 三十升에는 未達이 되나 細布에 속함을 알 수 있다.

4. 袍의 特徵

(1) 短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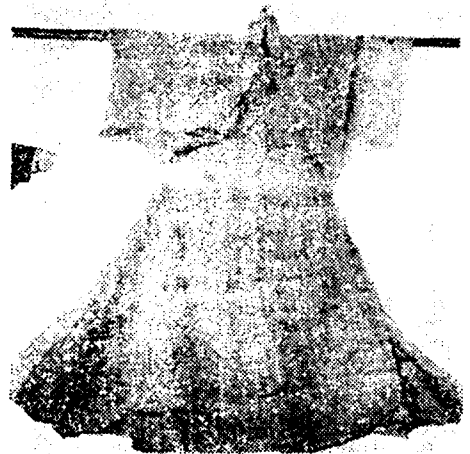
소매가 짧은 短袖衣는 長袖衣와 같이 衣服의 變위에 加服하는 樣式으로 着用한 것⁴⁾으로 이 遺物袍도 하나만 입었을 리는 없었을 것이므로 加服用이라고 생각한다.

(2) 주름

주름의 構成은 完全히 포개어지는 주름 5개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두개 반씩 주름을 잡아 사이를 절단하여 3×4cm의 직사각형 헝바대를 대고 안으로 주름을 고정시켰으며 헝바대는 의걸로 약간 도톰한 천을 使用해서 달았다.

(3) 옷 기

四角形의 목판깃으로 二重깃을 하고 있는 直領이다. 二重깃은 新羅時代의 九釐釐⁵⁾에 袷色을 두가지 색으로 나누어 表示하던 遺習이 高麗時代에 와



〔圖 5〕 遺物 袍의 實物圖

서는 그 색을 나누지 않고 가운데 線만 남겨 옛 風習을 固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二重깃은 朝鮮時代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⁶⁾.

옷깃은 속은 한판으로 되어 있으나 겉에서는 二重깃으로서 안에서 가운데를 접어 반박음질로 박은 것이다.

(4) 등바대

어깨 양쪽과 고대, 깃아래, 옆선 上端에 바대를 붙였다. 여기서 홑옷에 바대를 대는 제법법은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6】 주름의 實物圖(內·外)

동바대를 매는 理由는 衣服構造上 實用性에서 因듯하며 朝鮮王朝의 遺物中 흔스인 경우는 거의 다 代었다.

(5) 옷고름

帶의 소멸은 麗代로 推定하면서도 蒙古服屬期 以前에는 몇몇 단편적인 文獻記錄을 보고 袍帶가 그대로 있었으리라 생각해 왔다²⁾.

麗末鮮初로 보여지는 木偶에는 紅帶가 그 모양을 實際로 보여 주고 있으며³⁾ 이 袍에서도 고름의 흔적이 없다. 이런 점으로 보아 帶가 一般의인 推定보다는 상당히 後代까지 存在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Ⅱ. 遺物 織物類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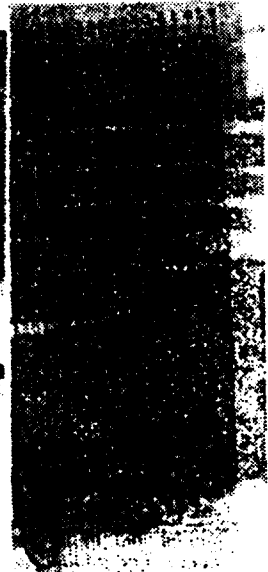
麗藏遺物 26片的 織物中 褙, 무늬, 조직을 살필 수 있는 紗片類 3種, 綾片類 6種, 絹片類 4種, 紵片類 1種, 絁片類 6種은 형태와 조직을 알기가 힘들어 그 나열에 그치겠고 綾片類 1種에 대해 織物名, 紋樣의 種類, 특징, 色 等を 살펴본다.

1. 紗片類

(1) 靑色唐草紋紗片

唐草무늬를 넣어 짠 靑色 紗 조각의 크기는 길이 48 cm, 幅 19 cm 이며 직사각형의 金箔紋이 찍혔다.

金箔紋의 크기는 22.5 cm×14 cm 이며 外廓帶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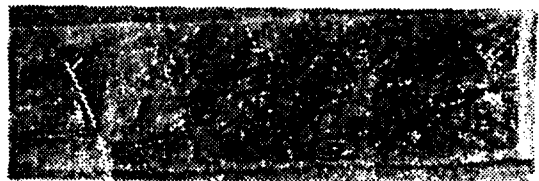


【圖 7】 靑色唐草紋紗片一

넓이 1.5 cm 되는 唐草紋帶로 둘러고 內部에는 波紋과 雲紋이 함께 어우러진 龍이 4마리 있으며 上下端에는 長方形의 小形區域을 連珠紋으로 하고 그것과 中央의 사이에는 朝鮮時代의 蝴蝶紋이 吉祥紋과 結合하여 吉祥의인 意味를 강조한데 비해 單獨으로 表現된 蝴蝶紋, 單純化된 紋樣으로 만든 牧舟紋, palmette 紋을 變化시킨 것으로 花紋樣化되어 가는 형식인 C字形 雲紋과 複合된 唐草紋帶를 설치하였다.

(2) 黃金色紋紗片(一·二)

靑色 紗 바탕에 靑色 絲를 길이로 넣은 조각이다. 黃金色紋紗片(一)의 크기는 30×4.5 cm 이고, 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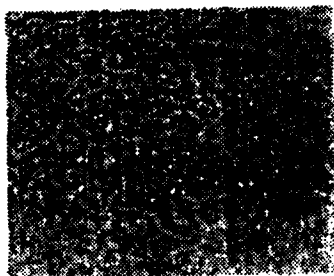


(一)



(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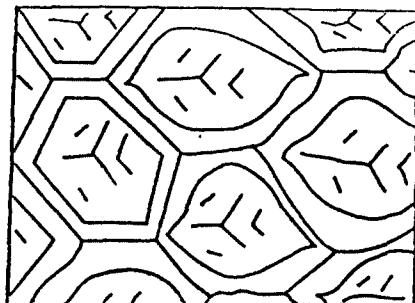
【圖 8】 黃金色紋紗片(一·二)



〔圖 9〕 雲紋紗片



〔圖 10〕 茶色龜甲紋綾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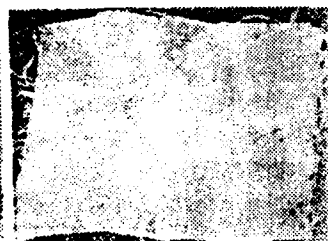
〔圖 11〕 龜甲紋



〔圖 12〕 飛鳥紋銀襪片



〔圖 13〕 靑色鴛鴦紋金襪片



〔圖 14〕 花紋金襪片

金色紋紗片(二)의 크기는 44×3.5 cm 이다.

약간 거칠기는 하지만 紗의 조직이 現代의 조직과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 보아 技術이 고도로 發達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雲紋紗片

雲紋紗片의 幅은 55 cm 고, 變形雲紋이 있으며 11字의 墨書가 橫書로 되어 있다.

2. 綾片類

(1) 褐色龍紋綾片

褐色 능직으로 8邊으로 된 것 안에 3爪龍으로 보이는 龍紋이 있다.

이것과 같은 무늬로 된 明의 相國寺¹⁰⁾에서 나온 遺物과 비교해 보면 六邊 또는 八邊 안에 꽃이나 새 등을 배치하고 있다.

(2) 茶色龜甲紋綾片

綾織으로 거북무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連續龜紋은 六角形의 기하학적 紋樣으로 모양은 어떤 것은 角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나뭇잎 같은 것을 六角形 안에 배치시켜 둥글고 완만하게

曲線으로 처리된 것도 있어 變化있게 表現된 것을 볼 수 있다.

(3) 飛鳥紋銀襪片

綾織조각으로 色은 紅色이며 銀襪으로 飛鳥紋樣을 綴成했다. 飛鳥紋은 새의 크기, 머리모양, 날개모양, 다리모양 등이 새마다 달라 個性있게 表現되었다.

(4) 朱紅金襪片

이 織物은 平織 바탕의 감 위에 金織 8개틀 매 틀없이 실을 끊으면서 그위에 하나 하나의 金織을 실트 왔다갔다 하면서 짠 것이다.

元來 金襪의 기본형은 삼베綾織에 直入했을 때 틀 달하는데 이 遺物을 통해 平織에 金絲로 紋樣을 直入한 것을 보아, 現在 平織에 金絲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 이미 高麗時代에도 使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靑色鴛鴦紋金襪片

이 織物은 삼베綾織의 바탕에 金襪으로 짜여졌고 다른 織物의 질감에 비해 아주 두꺼웠다.

(6) 花紋金襪片

金襪으로 花紋을 바탕에 織造하고, 金襪에 무늬

를 넣기 위한 緯絲를 特別히 짜서 한 紋緯를 위한 金緯絲를 特別히 넣어서 짜다.

3. 絹片類

(1) 朱紅絹片

朱紅 後梁織物로 經絲 보다는 緯絲가 상당히 굵은 平織으로 두꺼운 絹片이다.

(2) 藍色卍字바탕龍紋絹片

藍色 絹 바탕에 卍字紋이 있다. 三國時代·高麗時代에는 卍字紋을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崇儒抑佛 思想인데도 朝鮮時代에서 卍字紋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說이 있었다. 이 織物에서 卍字紋을 볼 수 있고, 高麗銅鏡에도 卍字紋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으로 보아 수정되어야 할 說이라고 생각한다.

(3) 黃綠色絹片

바탕에 細紋이 있는 幅 49 cm 인 黃綠色 絹조각이다.

(4) 絹片

幅이 50 cm 인 약 14升 정도로 짜여진 織物片이다.

4. 紵片類

(1) 생모시片

遺物 袍 보다는 升數가 적은 9升이나 細布에 속한다. 衿 위에 반박음질을 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시접은 의술로 되어 있다.

5. 紬片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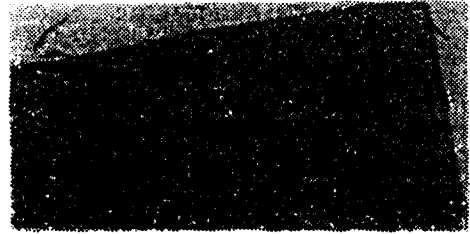
- (1) 黃色명주片; 2個 (2) 藍色명주片; 1個
(3) 米色명주片; 2個 (4) 靑色명주片; 1個

6. 緞片類

(1) 淡玉色雲紋緞片

使用된 감은 高麗時代に 나타난 緞織物로 오늘날 주자적의 紋樣織物을 말하는 것이다.

紋樣은 雲紋으로 雲頭가 풍만하고 가늘고 긴 雲尾로서 이루어진 것을 보아 中國·日本의 것과 高麗時代의 雲紋形態가 같은 것 같다¹²⁾.



【圖 16】 淡玉色雲紋緞片



【圖 17】 雲紋

IV. 結 論

遺物 袍는 첫째, 半袖衣 들찌, 高麗時代 상하귀 천없이 모두 입었던 白紵袍 세계, 승려의 平常服이라는 說이 있었다. 本人은 便服袍의 一種으로 본다.

遺物 袍의 特徵은 半袖, 二重깃, 무가 없고 옆트임이 없는 점, 넓은 맞주름을 옆트임 속에 붙인 점, 고름이 없는 점이다.

또한 遺物 袍로 말미암아 그동안 推定되어 오던 袍帶가 高麗代라고 하던 것이 麗末까지도 허리띠를 매었다는 것을 推定할 수 있다. 그러나 袍의 안쪽에 작은 끈을 단 것으로 보아 고름의 生成도 예측할 수 있다.

織物類를 살펴보면

· 織物의 種類는 紗, 綾, 絹, 紬, 緞, 紵 등 6 종류였다.

· 紋樣은 動物紋—龍, 蝴蝶, 鷄, 龜甲, 飛鳥
植物紋—唐草, 牡丹, 花

自然紋—雲, 水波

幾何紋—卍字

其他紋—環珞連珠 等 12종류였다.

·色은 靑, 紅, 黃, 藍, 茶, 米, 朱紅, 褐, 淡玉, 黃金 黃綠 等 11종류였다.

조그마한 영역이긴 하나 高麗時代의 한 모퉁이를 推定해 볼 수 있었다. 織物에서는 華麗한 金欄과 銀欄을 볼 수 있었으며, 紋樣의 表現도 上古時代나 朝鮮時代와는 달리 高麗만의 特徵이 나타나 있으며, 特히 龜甲紋, 卍字紋, 雲紋, 唐草紋에서는 高麗時代의 獨自의인 特色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유송옥, 朝鮮時代 出土服飾을 통해 본 男子袍 研究. 大東文化研究 18집, pp.158, 159, 1984.
2. 李殷昌: 天原 大坪里寺址의 石塔材, 考古美術 한국미술사학회 제 9 권 3호.

3. 李淳美, 우리나라 靱皮纖維織物에 관한 文獻的 연구 —고려사 中心—, 이대의류직물학과 대학원 석사 논문, p.11, 1984.
4. 조우현, 우리나라 短袖衣에 대한 연구, 1981.
5. 김부식, 三國事記 권제40 雜誌 제 9.
6. 유송옥, 前揭書.
7. 徐 統, 高麗圖經 권18.
8. 李京子, 木偶像의 服飾考察, 服飾 2호, p.28, 1979.
9. 김은주, 服飾에 나타난 織物紋樣의 考察—朝鮮王朝時代의 傳存 遺物을 中心으로—, 세종대학교, p.84, 1982.
10. 中國의 梁織(上), 藝竹堂刊.
11. 김정희, 朝鮮時代 女子服飾에 나타난 紋樣에 대한 연구—문양에 반영된 願望思想을 中心으로—, 1982.
12. 一雄—杉小, 中國의 紋樣史 研究, p.161.
13. 姜仁求, 瑞山 文殊寺 金銅如來坐像 腹藏遺物, 국립박물관, 미술자료 18호 1975.